



수행인문학의 생성과 글로컬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 한양대 인문학 특성화 프로그램 -

김 성 제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I . 수행성과 인문학

수행성은 “예, 약속합니다” 혹은 “이에 독립을 선언하노라” 등과 같이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천적인 행위가 되는 말에서 비롯한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지칭의 도구로 받아들여지며, 진술을 이루는(constative) 매체로써 주로 대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진술은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까지도 도구화한다. 화자와 청자와 기호가 모두 대상의 매체가 되는 부호로써 기능하는데 만족한다면, 인류에게 사회·역사·문화의 변화와 발전은 없을 것이다. 화자와 청자와 언어는 진술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으면서, 동시에 대화의 소통에서 담론이나 행동방식의 반복을 통해 실천적인 행동을 생성하고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수행적(performative)이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의 세계에 대해 반응하고 재현하는 화자와 청자와 그들의 말은 지

칭과 진술의 도구이지만, 화자와 청자가 이름 붙이거나 상상한 것을 만들어 내는 언어행위를 수행하면서, 사람들과 그 언어는 소통과 생성의 주체가 되어 세계를 변화시킨다. 인간과 세계와 언어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재현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체시키면서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내고 조직하는 행위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행성은 언어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예술과 문화로부터 정치와 경제에 이르는 사람 만들기과 세상 만들기의 상호 관계를 연결하는 실제와 이론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성에 주목하는 학문적 자세는 사람 만들기과 세상 만들기의 변화를 맞추면서, 그 변화의 필요를 창출하는 연구와 교육을 깨우는 수행인문학의 근간을 형성한다.

60여 년 전, 언어의 특수한 측면에 관해 우리들에게 생각할 바를 도와주었던 수행성의 개념은 이제 세계와 인간의 상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과정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론을 배태

“

수행인문학은 한양대학교가 뛰어난 연구와 교육의 기반과 역량을 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전망되는 4개의 수행인문학 전공 프로그램, 즉 과학기술학 전공, 공공수행인문학 전공, 미디어문화 전공,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개발과 그 교육으로 실행된다. 더불어 수행인문학 교육 연계 연구특성화와 실무 능력 포트폴리오 교양교육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인증 부전공 프로그램’ 과 수행 지도 및 평가를 통한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중 핵심적으로 인문학에 관련되는 것은 1) 정체성의 특징과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문제, 2) 사회적 규범의 형성과 그 기능의 문제, 3) 행위자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의 행위를 선택하여 책임지는 (특히 자신과 대상의 재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4) 개인과 사회와 문화의 변화 사이의 관계 문제, 5)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들의 적합성과 정당성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수행인문학’이라는 용어 자체의 형성은 이참에 그 개념의 지형을 생성하고 확장하여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특성화 사업은 ‘새로운 인문학 교육 모형의 개발’, ‘새로운 교육 연계 학제 간 연구 확대’, ‘교양교육의 내실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과 연구라는 행위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주체적인 수행성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새로운 인문학의 교육 모형 개발과 교육 연계 학제 간 연구 확대를 위해서 ‘수행 융합전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반 인문학 전공과정과 함께 ‘수행 융합전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행인문학 특성화 사

업은 기존의 해석인문학의 후견적인 진술에 대한 반성과 해석인문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실용인문학의 기능적 도구화를 지양하고, 인문학의 본연인 세계와 현상에 대한 성찰적 연구를 수행(修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선도하는 실천적인 인문학을 수행(遂行)하는 교육의 특성화에서 출발한다.

II. 수행인문학 융합전공 프로그램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수행인문학은 기술과 문화의 사회적 구성을 책임지는 융합적인 학문의 수행성을 적극적으로 생성하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사업이다. 21세기 세계화의 양동성, 즉 경제적 지구화와 정치적 지역화에 의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변화를 수행(遂行)하면서 균형 잡힌 비전과 판단력으로 문제들의 해결을 이끌어서 비판과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행(遂行)하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수행 리더’의 인재상은 1) 문화 창출과 지식 생산의 수행 리더로서, 2) 지속 발전이 가능

한 생산적 비즈니스 역량, 3) 글로컬 수행 커뮤니케이션 능력, 4) 세계화와 지역화의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인재의 양성은 수행인문학의 연구를 활성화하며,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수행인문학은 세계의 필요에 발맞추는 책임을 다하면서, 세계의 변화를 깨우고 그 필요를 창출하는 책임까지도 함께 지는 사람들의 교육과 연구이다.

일차적으로 수행인문학은 한양대학교가 닦아온 연구와 교육의 기반과 역량을 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전망되는 4개의 수행인문학 전공 프로그램, 즉 과학기술학 전공, 공공수행인문학 전공, 미디어문화 전공,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개발과 그 교육으로 실행된다. 더불어 수행인문학 교육 연계 연구특성화와 실무 능력 포트폴리오 교양교육으로써, ‘글로컬 비즈니스 능력인증 부전공 프로그램’과 수행 지도 및 평가를 통한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과학기술학전공은 갈수록 벌어지는 인문학과 공학을 소통시키는 융합전공 프로그램이다. 이 수행인문학은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에 대한 정책, 기획 관리 및 영향 평가 등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학, 현대한국사회와 과학기술학 등의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는 이공계 학생들과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공히 개방하여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 인문학을 접목시키고 이끌어갈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공수행인문학전공은 지구화와 지역화를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와 국내의 공공기관 및

NGO에서 Public Service를 수행할 인재를 교육한다. 특히 향후 공공영역 서비스 직무를 수행할 공직자는 행정과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낼 식견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공공수행인문학전공은 인문사회계 및 이공계 학생들에게 법학대학원 진학과 Public Service를 위한 전문지식을 국가와 사회에 소통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통합적인 중견관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미디어문화전공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그 결과로 야기된 새로운 매체의 전환적 상황에서 뉴미디어 담론들을 모색하는 수행인문학의 정립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수행인문학전공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와 미디어연구(Media Studies)를 토대로 하면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심화 교육을 통해 상호매체적 생산미학의 시각을 확대하고, 소비문화의 사회적 배경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인식을 깊게 하며, 문화콘텐츠를 가공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전공은 현재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세계어와 지역어를 통한 국제적 소통이 일상적인 필요로 다가옴에 따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간 대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에서부터, 문화 대 문화의 전문적인 소통을 활성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수행인문학은 국제 통상과 회의 및 통역과 번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 소양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국제 문화소통 분야의 학술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인의 소통장애와 소통격차 및 국제 문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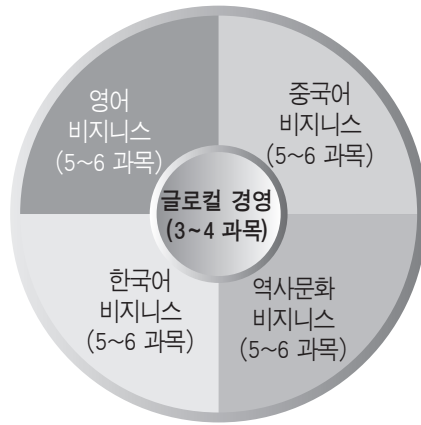
(그림 1) 수행융합전공 프로그램 : 교육 과정 및 트랙 모형

소통장애 및 소통격차를 극복할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글로컬 커뮤니케이션 인재를 양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Ⅲ. 수행융합전공 교육과정 모형

수행융합전공 프로그램은 인문대학 학생들

을 주 대상으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기반인문학 전공을 2~4학년 동안 36학점 이상 이수하고, 각 수행인문학 전공 과목군에서 36학점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수행융합전공을 인정할 계획이다. 2~3학년 동안 30학점의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4



(그림 2) 글로벌 비즈니스 부전공 교양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구성

학년 전문 진로 교육과정에서는 수행융합형, 수행현장형, 수행연구형 트랙에 따라 18학점의 교과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된다. 각각의 수행인문학 전공 분야에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튜터(수행교수)를 임용하여 기초교육에서부터 전문 진로교육까지 포트폴리오 학습 지도를 시행한다.

수행융합전공은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의 기반인문학 6개 전공 중 1분야와 수행인문학 4개 전공 중 1분야를 융합으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의 정착 및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수행인문학 구현과 인문학의 기본 교육 및 연구, 2) 학생 진로와 수요자 요구의 현실, 3) 현재의 인문대 역량과 프로그램의 정착 실현성, 4) 기반전공과의 상호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기반인문학의 지속적 발전과 수행인문학의 생성 및 정착을 기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Ⅳ.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 인증 부전공 교양교육 프로그램

두 번째 핵심사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그램 교양교육이다. 대학생들의 실무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과정화 되어 있지 않고 과목 강의 혹은 특별 강좌 등으로 진행되는 문제점과 경영학, 외국어문학 등의 복수전공에서도 로드맵에 따른 실무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 한국 - 동아시아 - 세계의 무역 시장에서 Skill Mismatch를 타개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위한 맞춤형 능력인증 부전공 교육과정이다.

영어 비즈니스는 영어 실무능력과 세계화 직업능력을 위해서, 중국어 비즈니스는 중국어 실무능력과 중국통상 직업 능력을 위해서, 한국어 비즈니스는 한국어 무역 실무능력과 특히, 외국유학생을 위한 실무 한국어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문화 비즈니스는 세계시

장과 지역시장의 문화산업 직업 소양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경영학 관련과목을 12학점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각 분야의 비즈니스 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서 적정 수준의 능력 평가에 따라 - 예를 들어 영어 비즈니스의 경우 TOEIC 성적 800점 이상의 학생에게 - 능력인증을 수여하고 부전공을 인정한다. 본 사업은 또한 향후 21세기 대학교육의 중요한 모형을 될 산·학 단기 실무능력 재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V. 맺음말

인문학이 사회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환경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서 국내 인문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해석인문학에 치거하는 연구와 실용인문학의 교육을 도구화시키는 불일치 사이에서 진로를 개척하지 못한 결과로 진단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 연구의 불일치, 학생들의 전공분야와 직업영역의 불일치, 학습과 직무능력의 불일치 등은 말로만 끝낼 수 없는 인문학의 위기를 절감하게 하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인문학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와 문화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문학은 연구와 교육의 즐거학문으로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비추는 거울이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길을 열어 필요를 창출하고 생성하는 촛불이다. 수행인문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문화, 과학, 공학의 경계를 가로질러 소통하고 융합학문의 연구와 통합 리터러시 교육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수행인문학은 인간과 기술, 사회, 정치, 경제와의 관계 변화와 함께 인간 주체의 형성 및 실천적 윤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그 변화의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하면서 필요를 창출하고 문화를 생성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다. ■■

김성제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Essex University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9년부터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 글로벌 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교육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탈근대의 담론과 권력비판』, 『교양으로 읽는 영미문학』, 『영화속 문학이야기』 외에 다수의 현대 영미 드라마와 문화연구 관련 논문이 있다.